

새로운 금융기술을 활용한 중소기업 금융접근성 제고 사례

임효진*

신용보증기금 팀장

윤태호**

신용보증기금 차장

국 문 요 약

최근 국내·외를 불문하고 IT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금융분야에서도 금융과 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가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금융시장의 비약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기업금융시장에서의 핀테크 활용은 아직까지 미미한 실정이다. 기업 신용평가는 재무제표 위주의 정태적(static) 과거 정보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업력이 짧고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에 제약이 존재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모든 거래를 일일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처리해야 하는 불편함도 애로사항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은 빅데이터 활용과 비대면 채널에 주목하였다. 본 보고서는 신용보증기금이 빅데이터와 비대면 채널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을 향상시킨 사례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신보는 기존에 활용되지 못한 동태적(dynamic)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의 현재 새로운 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하였다. 두 번째로, 신보는 중소기업의 금융거래 편의성 향상을 위해 비대면 금융업무 플랫폼을 도입하였다.

신보는 이를, 데이터 수집이 체계적이고 정교해야 하며, 중소기업 관련 데이터가 공유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시사점을 바탕으로 신보는 이제 기업 데이터 뱅크(Data Bank)로서의 역할을 도모하고 있으며, 더 나은 기업정보 생태계를 구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신보의 신기술을 활용한 중소기업 금융접근성 제고 사례가 핀테크를 활용한 공공기관의 금융정책 수립에 유용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핵심어: 핀테크,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데이터뱅크(Data Bank)

1. 서론

1.1 개인 및 기업금융시장 현황고찰

최근 국내·외를 불문하고 IT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금융분야에서도 금융과 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가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 모바일 등의 보급이 보편화되면서 그간 무의미하게 여겨졌던 자료들로부터 의미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빅데이터가 대출심사, 보험사기, 개인신용평가 부분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빅데이터를 신용평가에 활용함으로써 금융거래 이력 및 신용정보가 부족한 Thin filer의 대출이 가능해지고, 더 낮은 금리, 합리적 금융비용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

이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과 같은 비대면 방식 금융의 등장은 24시간 시·공간 제약없이 다양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금융에 있어 장소와 시간의 제약을 해소하고 있다.

이처럼 금융신기술을 활용하여 개인금융시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반해, 기업금융시장에서의 핀테크 활용은 아직까지 미미한 실정이다. 기업 신용평가는 재무제표 위주의 정태적(static) 과거 정보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업력이 짧고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에 제약이 존재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모든 거래를 일일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처리해야 하는 불편함도 애로사항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에 있어서의 한계를 해소

* imh@kodit.co.kr

** kkandoli@kodit.co.kr

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은 빅데이터 활용과 비대면 채널에 주목하였다. 본 보고서는 신용보증기금이 빅데이터와 비대면 채널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을 향상시킨 사례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43년간 축적한 중소기업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용평가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재무정보나 금융거래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인프라를 개선하는 한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금융업무 프로세스를 도입하여 중소기업의 물리적·심리적 금융접근성을 개선하는 투트랙 전략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구축된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와 비대면 업무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하여 온라인 전용 보증·보험 상품을 새로이 도입하였다.

II. 기업금융 개선과제

2.1. 동태적 정보를 통한 신용평가모형

첫 번째 전략으로, 신보는 기존에 활용되지 못한 동태적(dynamic)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의 현재 경영활동성을 평가하는 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하였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중소기업 신용평가가 과거의 재무제표, 금융거래 정보와 같은 정태적(static) 정보에만 의존하여 이러한 정보가 부족한 창업기업이나 소규모 기업은 금융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높은 금융비용을 지불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신보는 고용인원, 통신요금 납부 내역, 회선 사용정보, 낙찰정보 등 수시, 일, 월 주기로 생성되어 기업의 경영 현황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기업의 경영활동성 평가에 유의미한 팩터들을 도출하였다. 이들 팩터들로 신용평가 모델을 만들고 활동성 정도에 따라 양호, 보통, 주의, 요주의 4단계로 구분하였다.

모델을 활용하여 70만여개 기업의 경영활동성을 평가한 결과, 기존의 재무제표 기반 평가에 의한 신용평가등급은 낮지만 동태적 경영활동성이 양호한 기업은 부실률이 낮은 반면, 신용평가등급은 높지만 동태적 경영활동성이 미흡한 기업은 부실률이 높음을 발견하였다. 새로운 평가모델에 의하여 동태적 경영활동성이 높은 기업에는 금융을 지원함으로써 이전에는 재무제표 성과가 미흡하거나 신용 정보가 없어 제도권 금융시장에서 금융지원을 받기 쉽지 않았던 금융 소외 기업이 새롭게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마련되었다. 또한 기업이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신보가 내부적으로 보유한 데이터와 외부기관과의 온라인 연계를 통해 자동 수집한 데이

터로 기업평가가 가능해짐에 따라 중소기업이 좀 더 신속하게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2.2. 비대면 금융업무 플랫폼

두 번째 전략으로, 신보는 중소기업의 금융거래 편의성 향상을 위해 비대면 금융업무 플랫폼을 도입하였다. 기존에는 보증상담, 현장실사 및 기업평가심사, 보증약정 체결을 위해 중소기업의 영업점 방문이 필수적이었다. 한편, 신보를 이용 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대면 채널을 통한 업무처리에 대한 기업의 니즈가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신보는 전자공인인증 약정, 시점확인서비스(TSA, Time Stamp Authority) 등 IT신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제공 동의, 상담, 연장, 서류 제출, 약정까지 수행이 가능한 비대면 방식의 플랫폼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신보는 빅데이터 기반의 평가·심사와 플랫폼 기반의 비대면 업무프로세스가 결합된 보증·보험 신상품을 도입하여 기업이 실질적으로 혁신적인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플랫폼을 통해 보증, 보험을 신청하고 온라인으로 최소한의 자료만 제출하면 신보의 빅데이터 수집시스템에 의해 동태적 정보가 수집되어 자동으로 평가·심사 후 금융지원 가능 여부를 통지한다. 승인 통지를 받은 기업은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전자약정을 진행함으로써 보증절차가 완료된다.

III. 결론

3.1. 기업금융 개선과제의 의의 및 시사점

신보가 도입한 빅데이터 기반 신용평가와 비대면 플랫폼은 유기적으로 선순환하여 중소기업의 금융에 대한 접근성을 혁신적으로 개선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즉, 비대면 플랫폼을 통한 금융업무 프로세스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을 기존의 아날로그·오프라인 방식에서 디지털·온라인 방식으로 획기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신보는 보증·보험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의 데이터를 양적·질적 측면에서 더 체계적으로 수집,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수집된 빅데이터는 기업 평가와 심사에 활용되어 적시성 있는 기업평가가 가능하게 된다.

신보는 위 두 프로젝트를 통해, 빅데이터와 비대면 채널을 성공적으로 금융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수집이 체계적이고 정교해야 하며,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별로 파

편화되어 있는 중소기업 관련 데이터가 공유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발견하였다. 예를 들어 한국전력이 보유한 중소기업 전력 사용 현황, 통신회사가 보유한 통신회선 정보 및 요금 납부정보가 공유되어 이들이 융합될 때 빅데이터의 활용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적 시사점을 바탕으로 신보는 이제 기업 데이터 뱅크(Data Bank)로서의 역할을 도모하고 있다. 디지털 방식으로 수집된 기업정보를 가공하여 금융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과 금융기관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이 제대로 평가받고 제대로 평가된 등급에 맞는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중소기업들도 신보의 Data Bank를 통해 거래처 발굴, 거래상대방의 신용상태 확인 등이 가능해지는 기업정보 생태계를 구현하고자 한다. 신보의 신기술을 활용한 중소기업 금융접근성 제고 사례가 핀테크를 활용한 공공기관의 금융정책 수립에 유용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